

## 사닥다리로 다가오시는 주님

본문: 창세기 28:10-15

유튜브: [https://www.youtube.com/live/zPdTjLdSV1Q?si=vKDd2FRwt\\_BmCn0G](https://www.youtube.com/live/zPdTjLdSV1Q?si=vKDd2FRwt_BmCn0G)(주소 클릭-> 열기 클릭)

### [새벽 말씀 묵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차가운 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나의 잘못된 선택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바로 그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축복을 가로챘지만,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차가운 돌베개를 베고 눕게 되었습니다. 이 돌베개는 **내 힘과 잔머리로 살아가려던 모든 수단이 무너져 내린 철저한 바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힘이 완전히 끝난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지쳐 쓰러진 야곱에게 땅에서 하늘까지 달은 거대한 사닥다리 환상이 펼쳐집니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밑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인간이 선행과 의를 내세워 신에게 달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복음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기에,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라는 은혜의 사닥다리를 캄캄한 절망 한가운데로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선언하십니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체면을 버리고 먼저 달려가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율법의 잣대가 아닌 은혜의 복음으로 친히 찾아오십니다.

오늘 하루, 내 인생의 가장 어둡고 무너진 바닥에 꽂혀 있는 은혜의 사닥다리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어떤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 [말씀 관찰]

1. 야곱이 꿈에 본 사닥다리는 땅 위에서 서서 어디까지 달아 있었습니까? (창 28:12)
2.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어떤 동행과 보호의 약속을 주십니까? (창 28:15)

### [삶의 적용]

1. 내 힘과 자원이 무너져 내린 절망의 자리에서, 나를 찾아와 위에서 아래로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있습니까?
2. 나의 행위나 자격이 아닌, 오직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 오늘 십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내려놓아야 할 헛된 노력은 무엇입니까?

### [오늘의 기도]

주님, 내 힘으로 쌓아 올리던 헛된 노력을 십자가에 온전히 내려놓고, 인생의 캄캄한 밤에 은혜의 사닥다리로 찾아오신 예수님만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